

영화 “Star Wars I”의 테마음악 분석 - ‘Duel Of The Fates’ -

이예지,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lyj7939@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An Analysis of the theme in the movie “Star Wars I” - ‘Duel Of The Fates’ -

Ye-Ji Lee,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존 윌리엄스의 작품들중 영화 “스타워즈 I”에서 마지막 광선검 결투장면에 삽입된곡으로, 다스몰의 테마 ‘Duel Of The Fates’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이곡의 형식구조와 선율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형식구조는 제1부에 2개의 주제를 배치하고, 발전시킨 구조로 2주제에서 발췌하여 발전시킨 Intro, 1주제인 A, 1주제를 발전시킨 A’, 2주제인 B, 2주제를 발전시킨 B’, B”로 구성된다.
선율은 크게 2개의 주제로 나타나며, 1주제에서는 a와b, 2주제에서는 b를 발전시킨 b²로 c와b²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Intro 는 2주제에서 발췌한 c⁻¹과b⁻¹, A는 1주제인 a와b, A’는 a’과b’, B는 2주제인 c와b², B’는c’과c⁻¹과d, B”는 c⁻²와b³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의 선율에 나타난 각 주제의 리듬구조와 음정의 구성에 대한 통일 성과 다양성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음악 선율작곡기법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서 론

한국의 영화음악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 오고있으나 오케스트라의 사운드 구성력이나 스타일에서 단조로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1960년대부터 영화음악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의 선율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곡기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영화 “Star Wars”의 시리즈 1편에 사용된 ‘Duel Of The Fates(운명의 결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곡은 다스 몰의 테마로 알려져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는 오비완 케노비와 다스몰의 라이트 세이버 듀얼에서 처음 등장하며, 에피소드 2에서는 아나킨이 터스켄들에게 복수하러 갈때, 에피소드 3에서는 요다와 펠퍼틴의 전투에서 다시 등장한다. 존 윌리엄스에 의해 작곡되었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에 의해 녹음되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마지막 광선검 결투 장면에 삽입된 곡이다. 1999년도 존 윌리엄스의 ‘Duel Of The Fates’에서 제1부에 나타난 작곡기법을 악곡의 형식, 선율로 나누어 각 악절을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이 작품에서의 선율 작곡기법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화음악의 작곡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형식과 구조

[표 1] 제 1부의 구조 (mm. 1-77)

제1부 mm. 1-77 (77마디)	Intro	mm.1-10(10마디)
	A	mm.11-24(14마디)
	A’	mm.25-36(12마디)
	B	mm.37-48(12마디)
	B’	mm.49-65(17마디)
	B”	mm.66-77(12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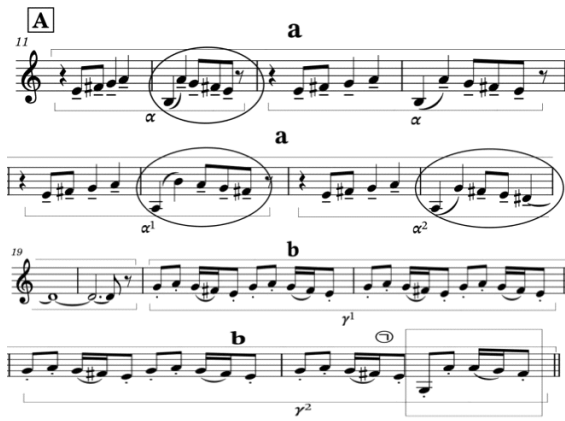
이 악곡의 형식구조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도막 형식으로 구성되고, 1부는 B부분의 동기를 발췌하여 변형한 Intro, 제 1주제인 A부분, 반복부인 A’부분, 제 2주제인 B부분, 반복부인 B’부분, B”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분석



[그림 1] mm.1-10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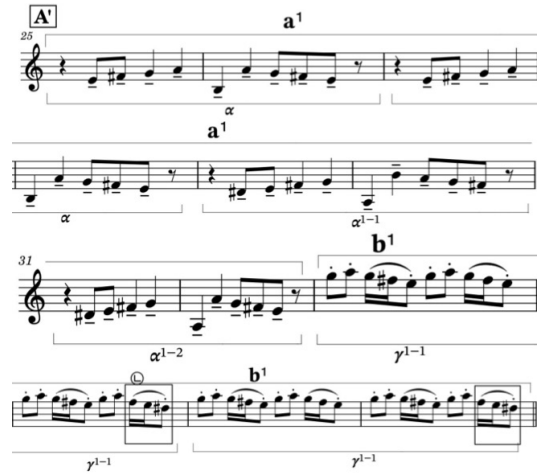
Intro의 선율구조는 위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c⁻¹과 동기 b⁻¹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동기 c⁻¹은 ββ + β + β + ββ⁻¹으로 구성되며, 동기 c⁻¹은 제 2주제인 B부분의 동기 c에서 발체하여 진행관계와 리듬적 요소를 축소시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B부분에서 나타나는 동기 c는 제 2주제의 라이트모티프(Leit Motif)로 다양한 변주기법에 의해 변형, 발전되어 이곡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1] 동기 c⁻¹의 부분동기 γββ은 B부분에 나타나는 제 2주제에서 부분 동기 ββ¹의 변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2] mm.11~24마디

A부분의 선율은 제 1주제의 제시부로 위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a와 동기 b로 구성되어있다. 동기 a는 부분동기 βa + a + βα¹ + α²로 구성되는데, βa는 연속 상행과 하행과 상행의 반복으로 γ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α¹과 α²는 a의 선율 진행관계 요소를 바탕으로 이도법, 신장법 등의 사용으로 다양성을 추가하였다[2][3]. 동기 b는 부분동기 αγ¹ + γ²로 구성되어있고, 동기 b⁻¹의 γ와는 대조적으로 γ¹에서는 옥타브의 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시도하였으며, γ²에서 ㉠과 같이 이도법, 신장법으로 선율진행의 변화를 시도하

였다.



[그림 3] mm.25-3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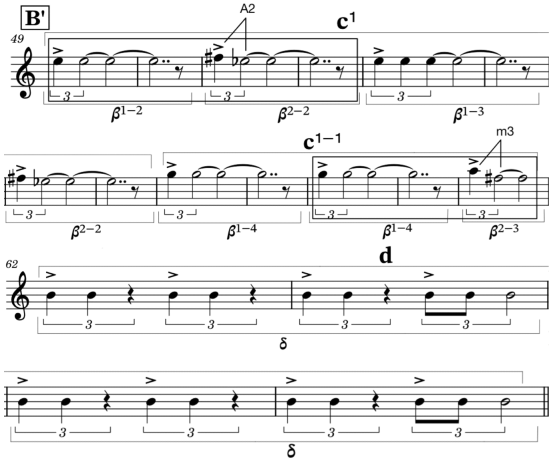
A'부분의 선율은 제 2주제의 반복으로 위 [그림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a¹과 동기 b¹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기 a¹은 βa + αβ + βα¹⁻¹ + α¹⁻²로 구성b¹로되어있으며, 전악절 A부분의 동기 ba에서 a부분을 동일하게 반복한 후 α¹의 선율 진행관계에서 이도법으로 다양성을 추가하였다. 반면 b¹는 부분동기 γ¹⁻¹의 반복으로, γ¹⁻¹은 γ¹을 부분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전악절의 α¹의 진행관계와 선율적 구조를 바탕으로 γ¹⁻¹에서는 음조각 ㉠과 같이 이도법으로 미약한 선율변화를 부여하였다.



[그림 4] mm.37-48마디

B부분의 선율은 제 1주제의 제시부로 위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ac + b²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c는 부분동기 β¹ + γβ² + γβ¹⁻¹ + β²⁻¹로 구성되며, 제1주제의 라이트모티프(Leit Motif)로 그 진행관계와 리듬적 요소는 반복법, 이도법 등 다양한 변주기법에 의해 변형 발전된다. 먼저 β¹은 동음으로 진행하는 반면, β²는 그 진행관계를 동음진행에서 하

행으로 변화시키고, β^{1-1} 은 β^1 의 변형으로 진행관계에서는 통일성을 주었으며 리듬적 요소에는 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β^{2-1} 은 β^2 의 변형으로 진행관계는 반복법으로 통일성을 주고, 리듬변화로 다양성을 주었다. 동기 b^2 는 동기 b^1 의 부분변형으로 부분동기 $\gamma^{1-2}+\gamma^{1-2}$ 로 구성되어 있고, b^1 의 γ^{1-1} 을 바탕으로 진행관계와 리듬적요소는 반복법, 이도법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γ^{1-2} 는 음조각 ㉔에서 보듯 상행, 하행 진행으로 γ^{1-1} 과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주는 반면, 그 진행관계요소에서 이도법을 사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그림 5] mm.49-65마디

B'부분의 선율은 제 1주제의 반복으로 위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c^1+ac^{1-1}+dd$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기 ac^1 는 동기 c 의 반복으로 부분동기 $\beta^{1-2}+\gamma\beta^{2-2}+\gamma\beta^{1-3}+\gamma\beta^{2-2}$ 로 구성되어 있고, c 의 β^{2-1} 과는 대조적으로 β^{2-2} 에서는 장2도 하행진행에서 증2도 하행진행하는 선율변화로 다양성을 부여한다. 동기 c^{1-1} 은 부분동기 $\beta^{1-4}+\gamma\beta^{1-4}+\gamma\beta^{2-3}$ 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조를 위해 이도법에 의한 선율변화와 $\gamma\beta^{2-3}$ 을 생략하는 또 다른 변화로 다양성을 부여한다. 동기 d 는 부분동기 $\delta\delta+\delta$ 로 구성되어 있고, 전악절에서의 동기 b 의 반복과는 대조적으로 동음진행의 반복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동기를 배치하며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 6] mm.66-77마디

B'부분의 선율은 제1주제의 반복으로 위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기 $c^{-2}+cb^3$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기 c^{-2} 은 동기 c 를 변형시켜 발전시킨것으로 부분동기 $\beta^3+\beta^3+\beta^{1-4}+\beta^{2-5}$ 로 구성되어 있고, 대조를 위해 G단조로 전조에 의한 선율변화로 다양성을 부여하였고, c 의 β 를 음조각 ㉔과 같이 구성음을 길게 연주하는 리듬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부여하였고, 부분동기 β^{1-4} 는 전악절에서의 동기 c^{1-1} 의 부분동기 β^{1-4} 를 반복사용하여 통일성을 주었으며, 이어서 나오는 부분동기 β^{2-5} 는 부분동기 β^{1-4} 에 리듬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동기 b^3 는 음조각 ㉔과 같이 이도법에 의한 선율변화와 부분동기 γ^{1-4} 에서는 옥타브의 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부여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Duel Of The Fates”의 제1부에 나타난 작곡기법을 형식구조와 선율을 각 악절과 악구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악곡의 형식은 2개의 주제를 제1부에 배치하고, 발전시킨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선율은 크게 제1주제와 제2주제로 구성되었고, 각 주제는 대조되는 2개의 유도동기(Leitmotif)로 구성되었다. 제1주제는 a와 b로, 제2주제는 c와 b^2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주제에서는 a+b, 제2주제에서는 b를 발전시킨 $c+b^2$ 로 동기 b를 확장 발전시켜 반복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a,b,c 3개의 동기를 반복 사용하여 작품전체에 균형감있는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리듬의 구조, 음의 구성, 음정의 내용등을 이도법, 축소법, 확장법 등 다양한 변주기법에 의한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위에 제시한 내용과 더불어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의 작곡기법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 작품에 대한 선율분석은 영화음악의 선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영화음악 작곡에도 방향성을 제시할수 있는 좋은 예가 될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H.볼초겐.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두산백과, 1887년
- [2] 김미림. 「작곡법과 음악분석」, 한국학술정보, 2011년
- [3] 나운영. 「작곡법」, 세광음악출판사, 1991년